

사회

# “전역·결혼 한 달 앞두고...이 무슨 날벼락”

■ ‘천안함 침몰’ 전남 출신 4명 실종

“사고 이틀 전 안부전화 했었는데...” 망연자실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지 사흘째인 28일 오후 4시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 예비군 교육대에 마련된 33.05m의 대기실에는 실종자 가족 150명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문규석 중사 정중용 중사 이상민 병장

특히 이번 사고로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4명의 젊은이들이 실종돼 가족·친지들이 오열했다. 이들 가족은 애틋한 마음을 억누르며 해군의 구조작업 진행상황 등을 초조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순천 출신 이상민(22) 병장의 아버지 이재우(51·순천시 해룡면)씨 등 가족과 친지 10명은 대기실 한 칸에 낫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 병장의 가족들은 전날 오전 10시께 고향 집에서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평택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이씨는 대기실에 도착한 뒤 아이들의 실종 소식을 믿기 싫은 듯 양손으로 연신 귀를 틀어막았고, 어머니(43)는 기진맥진해 흐르는 눈물조차 닦지 못했다.

이 병장의 동생(20)은 “사고 이틀 전 형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가족들 안부를 묻는 뒤 전화를 끊었다”며

“걱정”하며 팍팍 주저앉았다. 5월 9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는 말없이 눈물만 닦아냈다.

2함대 사령부에 마련된 임시숙소에서는 곡성 출신 실종자 정중용(33) 중사의 여섯 살배기 아들이 할머니(59)의 품에 안겨 영문도 모른 채 자고 있었다. 정 중사는 8년 전 부인(33)과 결혼한 뒤 부대 내 관사에서 거주해 왔다.

정 중사의 어머니는 “곡성에 사는 할머니가 사고 소식을 듣고 놀랄까봐 일부러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구례가 고향인 문규석(37) 중사(진)의 부인 한정미(37)씨는 “사고 당일 오후 4시께 마지막으로 통화했는데, 평소와 다를 게 전혀 없었다”며 “구조작업이 1분이라도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평택=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천안함 침몰로 실종된 곡성출신 정중용 중사의 어머니 이덕씨가 28일 해군 2함대 사령부에 마련된 임시숙소에서 잠든 손자를 애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평택=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구조자 6명 가족들 안도의 한숨

천안함 침몰사고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광주·전남 출신 생존 구조자들의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군 당국에 따르면 천안함 사고에서 구조된 광주·전남 출신은 박연수 대위(광주시 광산구), 함은혁(광주시 서구), 홍승현(신안), 정주현(여수), 라정수(담양·이상 하사), 김수철 일병(보성) 등 모두 6명이다. /평택=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나원침 (8073) 김종두



승용차 옹벽 들어받아 불타

28일 새벽 0시40분께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남양유업 앞 도로에서 박모(36·나주시 청동)씨가 운전하던 ‘29도25××호’ 오픈카 승용차가 도로 옆 콘크리트 옹벽을 들어받아 차량에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박씨의 운전미숙이나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평택=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강운태 비방 유인물 3만장 뿌려

## 부녀자 등 13명 “5·18 구속부상자회서 일당 3만원 받아”

### 남부경찰, 유인물 소지 구속부상자회원 2명도 입건

민중당 광주지부 강운태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소지하고 있던 5·18 구속부상자회 소속 회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28일 조모(53)·이모(56)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에서 강 예비후보의 5·18 민중항쟁 당시 행적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유인물을 지니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강운태 예비후보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사내 곳곳에 살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인물에는 “강 예비후보가 자서전에 5월 당시 광주 시내에 있었다고 적었는데, 정확한 사실 관계를 대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서구 치평동 5·18 구속부상자회와 남구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한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분석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10대 고용 보도방 업주 등 5명 검거

### 광주 서부경찰

교통을 중화한 여고생이나 주부 등을 노래방에 알선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쟁전 조직폭력배와 이른바 보도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8일 광주 M과 행동대원 박모(21·북구 운암동)씨 등 2명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4개월간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보도방을 차려놓고 A(17·광주 모 고교 2년 중퇴)양 등 10대~20대 여성 도우미 15명을 고용한 뒤 서구 상무지구 노래방 30곳에 소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 등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주부 B(여·26·남구 월산동)씨 등 여성 6명을 고용, 서구 상무지구 일대 노래방 10곳에 도우미를 알선해온 보도방 업주 최모(21)씨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모(20·서구 쌍촌동)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주인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한편, 박씨 등이 이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 농식품부 직원 등 8명 사망

### 충남 태안 해변서 교통사고

지난 26일 밤 11시께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천리 청포대해수욕장 ‘별주부 기념비’ 앞 해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등 8명이 탄 그랜드캐니언 승합차가 백사장내 바위와 충돌, 전원 이슬졌다.

소진 승객들은 이날 별주부마을로 워크업을 온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경제발과장 김영준(42)씨 등 직원 7명과 이들을 안내한 태안군청 직원 문선호(54)씨 등으로 문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동료 직원 9명 등 모두 16명이 이날 오후 4시께 해수욕장 인근 ‘별주부마을’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워크업을 열기 위해 태안지역에 내려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7월 9일 공무원 경찰직** 서울고시학원!! 서울고시학원!! 서울고시학원!!

**합격 전문학원** **합격이면 합격은 업고 발라줍니다!**

- 2009년 입사, 전남 지방(국가직 포함) 행정직 20명, 봉급에 100% 원가, 70% 장학혜택
- 2009년 입사, 서울 지방(국가직 포함) 행정직 20명, 봉급에 100% 원가, 70% 장학혜택
- 2009년 입사, 전남 지방(국가직 포함) 행정직 20명, 봉급에 100% 원가, 70% 장학혜택

**개강>매월 1회** 행정직/교육행정직/사무직

**4월 1회** 국어: 송태웅 선생님

**경찰직** 서울고시학원 전문 - 경찰직 합격의 비결! 광주지부에 접수함

**서울경찰전문학원 | 251-79591**

**서울고시학원** 514-4560 kgsol.co.kr

**의사/약사가 되는길** 멀티패스 의학원!!! 멀티패스 의학원!!!

공공 최초 도입된 한국 유일 국수자격 학점 인정 자격증

**PEET/ MEET/ DEET**

MCP-의학원원리 특강

**특별초빙: 임명섭 교수 | 임만성 불역!**

MDP Pass 의학원 | 253-3453 mdp-pass.co.kr